

# 한 해 소중한 추억 따뜻한 선율에 담아...

●2024 ACC 송년 음악회...내달 20일 예술극장1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감동적인 콘서트 만나보세요~” 매년 다채로운 구성과 화려한 라인업으로 연말 선물 같은 무대를 선사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올해도 화려한 라인업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김현철·장필순·메이트리 등  
국내 최정상 가수 ‘한자리’

다음달 20일 오후 7시30분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열리는 ‘2024 ACC 송년음악회’다. 탄탄한 하모니의 오케스트라와 국내 최정상 가수들이 출연해 잊지 못할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2024 ACC 송년 음악회’에서는 ‘우리가 사랑했던 그 시절, 그 노래’로 추억여행을 떠난다.

이날 음악회는 영화음악전문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인 심포니아르모니아(지휘 김재원)가 연주를 맡았다. WE필하모니오케스트라 수석연주자들로 구성된 심포니아르모니아는 아카데미영화제 수상곡 앙상블로 올 겨울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먼저 1부 공연에서는 영화 속 장면만큼 아름다웠던 추억의 영화 음악들이 준비돼 있다. 유튜브 구독자 555만명을 자랑하는 세계적 보컬그룹으로 인정받는 메이트리가 아카펠라와 함께 노래해 더욱 관심을 모은다.

공연은 영화 ‘라라랜드’ 오프닝 곡인 ‘Epilogue’로 서막을 연다. 이어 ‘알라딘’ 주제곡인 ‘Colors of the Wind’, ‘시네마 천국’의 ‘Cinema Paradiso’ 등 주옥같은 명곡 연주가 펼쳐진다. 1부 마지막 곡은 영원한 크리스마스 영화인 ‘나 홀로 집에’의 ‘Holiday Flight’이 장식된다.

2부 무대는 아름다운 과거의 향수 속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무대의 주인공은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는 김현철과 장필순이다.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와 ‘달의 물락’,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너를 부를 때’와 ‘제비꽃’ 등 명곡들이 원곡 가수들의 목소리로 울려 퍼진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김현철과 장필순의 듀엣무대다. 이들이 함께 부르는 곡 ‘잊지 말기로 해’(김현철 작곡·장필순 작사)는 1989년 장필순 1집에 수록된 곡으로, 발표 이후 35년 만에 이날 재회 무대를 통해 펼쳐진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친구를 만난 것처럼 아름다운 기억을 소환해낼 예정이다.

공연 예매 등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현 전당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공연으로 ACC를 찾은 관객들이 따뜻하고도 특별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2024 ACC 송년음악회’를 기획했다”며 “최고 음악가들이 펼치는 특별한 무대를 통해 감동적인 연말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2024 ACC 송년음악회’가 다음달 20일 예술극장1에서 열린다. 사진은 위에서부터 심포니아르모니아, 메이트리, 김현철·장필순.

## 스타 작곡가 엘가·드보르작 만나다

29일 광주시향 정기연주회...첼리스트 문태국 협연

19세기 말 영국의 두 스타 작곡가 엘가와 드보르작 곡을 만날 수 있는 연주회가 마련됐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 민주관에서 388회 정기연주회 ‘Star’ 무대를 펼친다. 이날 공연은 정나라의 지휘로 첼리스트 문태국(사진)이 협연한다.

이날 연주회 포문은 엘가의 ‘첼로 협주곡 E조조’로 연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 작곡가이자 클래식 음악의 자부심인 엘가의 대표작으로, 드보르작·슈만의 첼로 협주곡과 함께 낭만주의 첼로 협주곡의 걸작으로 꼽힌다. 비극적인 첫 화음으로 시작해 첼리스트의 눈부신 기교가 절정에 달하는 곡이다.

이날 협연자로 무대에 오르는 첼리스트 문태국은 파블로 카잘스 국제 첼로 콩쿠르 우승,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4위 입상으로 주목받는 첼리스트다. 뉴잉글랜드 음악원과 미국 남가주 대학교를 거쳐 현재 줄리어드 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수학 중이다.

연주회 후반부는 체코 대표 작곡가이자 영국에서 큰 사랑을 받는 작곡가 드보르작 ‘교향곡 7번’이 연주된다. 영국 로열 필하모니협회는 종교음악 ‘스타바트 마테르’와 ‘교향곡 6번’을 선보여 큰 성공을 거둔 드보르작에게 새로운 교향곡을 위촉했고, 이렇게 탄생한 곡이 교향곡 7번이다. 이후 드보르작은 ‘보헤미아의 브람스’라는 별명을 얻었다. /최명진 기자

## 채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제6회 국창 임방울상 수상 영예

(사)임방울국악진흥회, 오는 29일 시상식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중재)가 제6회 국창 임방울상 수상자에 채수정(사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주임교수를 선정했다.

‘국창 임방울상’은 임방울국악제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 중 국창 임방울 선생의 숭고한 예술정신을 기리고 판소리 계승 및 진흥 발전에 뚜렷한 공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임방울판소리체험장 6층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 6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2011년 제19회 임방울국악제 명장부 대통령상을 수상한 채수정 교수는 9년째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



이다. 후학 양성은 물론 각종 저서 출간, 음반 제작, 개인 발표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판소리 계승·보급을 위해 헌신해왔다.

2022년에는 (사)세계판소리협회 이사장에 취임, 프랑스·베트남·대국·사우디·두바이 등 세종학당과 유대관계를 갖고 판소리 세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중재 이사장은 “역대 수상자들을 지원하는 등 이들의 활동을 격려하는 좋은 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 과거시험 답안지 ‘시권’을 만나다

한국학호남진흥원, 오는 21일 전남대서 학술대회

조선시대 과거시험 답안지 ‘시권(試券)’의 특색을 살펴볼 수 있는 학술대회가 마련됐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전남대 인문대학 김남주홀에서 ‘시권 연구·활용 방안’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특색을 조망하며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하고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특히 조선 선비들의 지혜와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시권을 시민들에게 쉽게 알리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송만오 전북대 교수 ‘조선시대 시권의 종류와 그 특징’ ▲김광년 KAIST 교수 ‘조선 과거

자료의 존재 양상과 그 분류 시론’ ▲이효중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원 ‘시권의 대중화 및 활용화 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류호석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이뤄진다.

홍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은 “조선의 과거시험 제도와 그 답안지에 대한 연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현대의 삶과 미래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학호남진흥원은 202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국비를 지원받아 호남 유학자들의 시권 자료를 중심으로 조선 시험 답안지를 정리,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